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 · 농산물 고품질화 지원 강화

정읍시가 FTA 파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현대화와 농산물의 고품질화, 유통판매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경지면적은 약 2만3천299ha로 답 1만5천983ha, 7천246ha이다. 미국과 밀, 귀리 등 주요 식량작물 비율은 75%, 수박과 토마토, 딸기, 지황 등의 원예 및 특용작물 등은 25%이다.

김생기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온난화의 영향과 지리적인 특징으로 다양한 품목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며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등 지역맞춤형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563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으로 예산규모별 주요 사업을 보면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314억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82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55억원 ▲시설원예작물 경쟁력강화사업 51억원 ▲전통주제조·체험장 및 쌀가공 육성지원 21억원 ▲농산물유통지원사업 12억원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10억원 ▲명품브랜드 단품미인쌀육성 8억원 ▲로컬푸드 기반구축 5억원 ▲내수면 소득지원사업 5억원이다.



▲직접 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

FTA 및 DDA 협상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과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접 지불제 지원 예산 314억원을 확보했다. 쌀발직불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264억원, 발농업 손실에 따른 소득보전인 발농업 직불제사업 등 모두 31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82억원을 투입한다. 46억원을 들여 농가에서 선호하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등을 지원하고, 건전묘 육성 일환으로 18억원의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계절화 경영체 육성사업에 10억원, 벚꽃 환원사업 5억원, 육묘장 사업 2억원 등의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한다.

▲친환경 농산물 지속적인 생산 확대·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해 55억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 지원 25억원, 유기질비료지원 10억원을 비

친환경 쌀 이용한 민속주 제조·체험장 구축 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출하 일괄 처리 로컬푸드 직매장 신선한 농산물 안정적 공급 추진

롯데친환경 잡곡 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선다. 51억원을 투입해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 육성에 나선다. 24억원을 지원해 시설하우스의 축고 높이기와 양액시설 설치 등 시설하우스 기능을 보강한다. 특화작목인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감자의 연중생산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겨울철 효율적인 난방지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8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주 제조·체험장 및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부처 20억원을 들여 친환경을 쌀을 이용한 전통 민속주 제조 및 체험장 구축에 나선다. 5월 착공, 11월 중 준공예정인 사업이행 사항 점검과 적정부지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주 제조장 330㎡, 체험장 100㎡로 제조와 체험 기계설비 등이 들어간다. 이밖에 1억원의 쌀가공업체 안전위생

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등에 1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준공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산지유통센터는 운영 첫 해인 지난해 97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곳에서는 집하장과 선별장 등 현대화 설비를 갖추고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원예농산물을 집하에서 선별, 포장, 출하까지 일괄 처리하고 있다.

▲과수 고품질 기반 구축 단품미인쌀 육성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10억원을 지원한다. 관수관비 시설과 야생동물방지사설, 환경제어시스템 등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탄탄한 기반을 구

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과일에 밀려 국내산 과일 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8억원을 들여 대표브랜드쌀인 단품미인 쌀산단지 5개소를 집중 육성한다. 신동진벼 보급종 70톤을 공급하여 품종을 단일화시키고 소비자 안전성을 고려하여 GAP인증을 받기 위해 토양검증도 실시한다. 품질관리 지도원을 위촉하여 재배기간 동안에 농약 및 질소비료 사용을 저감토록 지도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쌀 생산에 주력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3억2천만원을 들여 북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옆에 고모네 집터 로컬푸드를 신축한다. 또 2억원을 투입해 작복면과 소규모 농가 및 괴령농 등에게 비닐하우스 23동을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수면 활성화사업에 5억원을 지원한다. 이의 일환으로 내수면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에 2억원, 양식시설기반과 장비 지원에 2억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원을 지원한다. 토속어류인 장어와 자라, 동자개, 다슬기, 참게 등의 치어양육로 풍부하고 균형 있는 생태계의 조성과 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6회 옥천골 벚꽃축제 일정별 행사내용

4월 7일(목)	17:30 ~ 19:00	여성단체, 여성 섹스폰 공연, 밸리댄스 공연
	19:00 ~	군민노래자랑 예선
4월 8일(금)	10:00 ~ 15:00	어린이 사생대회(순창문화원)
	17:00~17:30	섹스폰 공연, 가야금병창
	17:30~18:00	트로트신동 공연, 민요
	18:00~19:00	L-NET, TV 출연 가수 공연
	19:00 ~ 19:30	트로트 가수 경해진 공연
	19:30 ~ 19:50	개막식
4월 9일(토)	19:50 ~ 20:00	불꽃놀이
	20:00 ~ 21:30	순창음악협회 공연
	15:00 ~ 15:30	민물장어잡기 행사(현장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17:30 ~ 18:30	힐링포럼(오서영 교수외 9명) 시가내리는 한옥마을 후원(시낭송)
	18:30 ~ 19:00	미술공연 지혜준 미술사
	19:00 ~ 20:00	기호무대(60,70년대 어려운 시기에 화랑의 메시지) 흘러간 옛 추억의 노래 30곡 공연(갈매기봉사단)
4월 10일(일)	20:00 ~ 21:00	군민 축석 노래자랑
	15:00 ~ 15:30	민물장어잡기 행사(현장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18:00 ~ 19:30	초청가수 공연
	19:30 ~ 20:30	군민노래자랑 결승

주최 : 85연합동창회 주관 : 옥천골 벚꽃축제 제전위원회 후원 : 순창군 · 벚꽃축제 후원회
옥천골 벚꽃축제에 후원하실 뜻있는 회원님을 모십니다. (☎ 010-5682-2382 / 010-7687-0122)

◆ 장애접기 행사 현장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전북도 지역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